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열 한번째의 글

청빙예정서 받지 않은 공동총회 소집은 불법 홍목사 안 오겠다고 했는데 “기도하자”는 코미디

우리 교회 헌법 제38조 1항은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항. 담임목사 : 청빙위원회가 후보를 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거쳐 청빙예정서를 보내어 본인의 내락을 받은 후 공동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 청빙서를 보내어 청빙수락서를 받는다. 단 승인과 동의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에서 투표로 천거한다”

이 조항을 보면 박제임스(한국명 :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흥인 등 6명의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법을 지키지 않았고 무시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 6명의 장로들은 당연히 헌법에 따라 “청빙예정서를 보내어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공동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청빙예정서는 고사하고 말로라도 “좋습니다. 공동회의에서 결정하면 가겠습니다”라는 구두 동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홍민기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번이나 “안간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안 오겠다는 사람을 청빙하자며 공동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재를 스카웃할 때도 먼저 스카웃 대상 인물이 오겠다고 해야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상사는 사장에게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올 의향도 없는 사람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결정토록하는 것은 바보나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6명의 장로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동총회 후에 홍목사 본인이 “안 온다”고 했으면, 3명이나 되는 당회원들이 뉴욕의 홍목사 집회 장소까지 쫓아가 “와 달라”고 애걸복걸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잊고 교인들에게 사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6명의 장로들은 대안이 없다면서 “기도합시다” 하더니 이번에는 “홍민기의 오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시간마다 그의 얼굴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코미디”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홍목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로님들만 아니라면서 기도하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LA바닥에서 창피해 못살 정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네 교회에서 청빙한 젊은 1.5세 목사가 안 오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이 인사입니다. 교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 파동은 단순히 창피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성도님들을 기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

인 실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기만 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예산, 결산 통과없이 멋대로 ping ping 돈쓰는 장로들 제직회는 안 열고 정기공동회의는 두번이나 열고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크고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기업, 심지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의 단체 등 모든 단체와 기관에서 꼭 지켜나가는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절차를 무시한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 열렸던 첫번째 정기공동회의는 사회를 맡은 박석재 장로가 갑자기 폐회시켰습니다. 그 후 박석재 장로는 직접 "그 때 아무개의 동의를 얻어 폐회시켰다"(이 내용은 녹음돼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6명의 장로들은 지난 5월 16일 또다시 정기공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기공동회의는 1년에 한번만 열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단체건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히도 그날의 정기공동회의는 경찰에의해 해산됐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정기 공동회의 없이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공동회의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통과하고 교회조직,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후보자들을 인준하게 되는데 정기 공동회의가 없었으니 어느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실로 묘한 입장에 놓인 것이 우리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 예산통과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6명의 장로들은 단 한마디의 설명이나 사죄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줄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이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책정돼야하며 그 예산 안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열리는 제직회에 결산서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합니다. 지난 10개월동안 단 한번도 제직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절차를 무시한 채 갑자기 회의를 폐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단체의 어느 회의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는데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니 지난 6월부터는 아예 제직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달에 한번씩 제직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을 무시하고 성도여러분을 기만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안수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정부 차장인 엄창웅집사는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하는데 소문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지불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단 100달러라도 지불했으면 제직회 때 보고를 해야하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인 여러분이 직접 본대로 시도때도 없이 수 십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불러들여 배치하는 바람에 그 비용으로 무려 10여만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얘기입니다.

18명의 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또 재판 1명 전도도 힘드는데 왜 쫓아내야 하는가

또 지난 10여개월사이에 우리교회는 수 십만달러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지출해야했습니다. 칼손 변호사는 공식석상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변호비가 50만달러라고 밝힌바 있습니다.(이 발언은 녹음돼있습니다.) 2명중의 하나인 파커 변호사는 지난 달, 박석재 장로 등이 공동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임동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20여명의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다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파커의 변호사 비용도 최소한 30여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입니다. 파커가 사임하고 손변호사가 일선에서 후퇴하자 박석재 등 6명의 장로들은 David Kim이라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소한 몇 만 달러의 수임료를 우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헌금도 줄었다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김변호사는 지난 8월24일 장로와 집사 등 18명의 교인을 쫓아내기 위한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1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선관, 전장근, 임승호, 한경수, 김대복, 라철삼, 차귀동, 김광찬, 배영하, 김범수, 마사웅 집사와 임승표, 정영식, 이성주, 김요한, 안광석, 김영만, 전용석 장로(이상 소장에 기록된 순서) 등입니다. 이날 LA 지방법원에서 열린 일정조정 모임에서 호그 판사는 소장의 전달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한달 뒤에 다시 열도록 했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위해 주님은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찾아 내셨는데 박석재를 비롯한 이들 6명의 장로들은 18명,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50여명의 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적셔있는 수 십만 달러의 헌금을 지출 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명의 교인중에는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내쫓고 떠나는데 어떻게 헌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나는 일입니다.

장주영목사 또 헌금가운데서 헌금 빼 돌렸나? 박환장로 “선교헌금 다른곳에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폭로

지난 8월 22일 주일날 헌금이 1만6천 달러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송비용을 위해 헌금중에서 헌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이 솟법은 강준민 목사가 써 왔던 것으로 당시 재정국장이었던 장주영목사가 그 하수인으로 무수한 자금을 빼돌렸던 솟법과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박석재 등 6명의 장로들만이 아는 사실이겠지만 돈을 빼돌리는 전문가인 장주영목사가 바로 그 옆에 있으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8월 22일 주일 3부 예배시간에 박환장로는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교회의 재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정 헌금인 선교헌금을 모자라는 데 쓰느라고 선교지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헌금이 나오도록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데로 아껴 써야지 선교헌금을 가져다가 시큐리티 가드비용으로 또는 변호사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교회 헌법에 위배되고 성도여러분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선교의 사

명을 위해 정성껏 선교비를 냈던 참 신앙의 성도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낸 헌금을 자기들 멋대로, 흥청망청,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써도 지난 기간동안 제대로 된 회의라는 것이 없어 이를 감시하거나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그 때마다 “저 사람들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다,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비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교회상황 알고 싶다는 교인 2명 제명처분 원로목사 쫓아내면 당회도 쫓아낼 수 있다.

지난 7월 중에 안수집사 중의 한 분이 당회에 우리교회의 재정상황 등을 알고싶으니 보여 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질문서를 보낸 그 안수 집사를 그 날로 제명처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 행정목사인 장주영목사는 “당신은 제명됐으므로 우리 교인이 아니기때문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는 뻔뻔스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뒤 또 다른 집사님이 똑 같은 질문을 했더니 역시 그 집사님도 제명됐다면서 똑같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인을 제명하는 등 징계를 할 때는 그럴만한 합법적이 이유가 있어야하며 당회는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징계규정을 만들어 그 절차에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후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교인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무법 천지입니다. “당회는 최고의 치리기관이다”, “당회는 징계권이 있다”고 이들 장로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이미 임동선 원로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후보에 나와있는 원로 목사 소개 문구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임동선 원로목사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원로 목사는 헌법에 나와있는 기구입니다. 당회도 헌법에 나와있는 기구입니다. 원로목사를 쫓아낼 수 있다면 당회도 쫓아 낼 수 있습니다.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 지금 그들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석재, 엄문섭 장로 임기 이번주로 끝났다 지난해 호그판사 최종판결에서 명확하게 언급

지난해 7월 17일, LA 지방법원의 호그 판사는 강준민목사와 관련된 최종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2006년 11월 5일에 헌법에 반하여 직책에서 쫓겨난 원고와 당회원들은 이제 당회원으로 복구된다. 2006년 11월 4일의 그 상황으로 복구하는데는 쫓겨난 날부터 이판결이 난 날(2009년 7월 17일)까지 사이에 임기 또는 헌법 54조에 있는 65세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다” (아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aintiffs and other Session members were removed from office on November 5, 2006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re hereby restored to their positions as Session members. To reinstate the status quo as of November 4, 2006, the lapse of time between that date and the date of this order shall not be calculated against their terms or against any Elder's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5 under Article 54.

지난해 이 판결을 두고 노수정 장로는 임기가 더 남아있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창피한 모습으로 퇴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에 따르면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는 이번 주로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 장로들은 다음해 말에 임기가 끝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남아있는 날 수 즉 11월의 25일과 12월의 31일을 합한 51일 플러스 1년이 잔여 임기입니다. 판결이 난 날이 지난해 7월 17일이니까 지난 7월 17일이 1년이고 여기에도 51일을 합하면 9월 11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로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의 임기는 끝난 것입니다. 노수정 장로처럼 이유를 대면서 추잡스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물러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노수정 장로 파동 때 박석재 장로는 "노장로가 물러나지 않고 속을 썩인다. 나도 여러번 물러날 것을 요구했었다. 더 이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호그 판사의 판결은 남아있는 임기를 날자까지 정해가면서 보장한 것입니다. 그 날자까지는 봉사해야 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짜 이전이 아니라 그 날짜까지라는 것입니다..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돼서 또 다시물의를 일으키는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박제임스(한국명 :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3개 여성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마련, 진행시켜왔던 심야 기도모임을 아무런 이유없이 하루 아침에 중단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이들 장로들의 반대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동양선교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장로들은 최근에는 3번이나 공식으로 거절했고 서울의 국민일보에 “동양선교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장로들이 뉴욕의 집회까지 찾아가 애걸 복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거듭, 거듭 밝힌 홍민기목사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자고 교인 모두에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슬픈 현실 중에도 매주일 오후 1시부터 월드미션 신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특별 기도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도모임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동양선교교회의 정상회복을 위한 합심기도, 떡을 나누는 ‘대화의 광장’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주일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모임을 갖게됩니다. “총동원 예배”로 지정한 이날 모임에서는 특별히 귀하고 은혜로우신 목사님을 초청, 말씀을 듣고 우리교회를 위한 합심기도회를 가지며 이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동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해주신 청원서의 제출과 현재까지의 진전상황 등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나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현재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발표와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풍성하고 정성스런 애찬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도모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임입니다.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라면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청원서에 서명을 하신분들은 그 서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잘 하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망없이 교회 생활을 해 온 교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쁜 만남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 찾아 오시고 차량편의 등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 5700이나 310-339-6062, 213-321-0615, 323-983-1083 그리고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및 총동원 예배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총동원 모임은 9월 12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